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훈



회순 박순철

화순군, 일자리 창출 '팔 걸었다'

화순군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25,7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등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제과장을 일자리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일자리 TF팀을 구성해 각 부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팀을 일자리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기업유치, 생물의약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를 창출 등 세 분야로

5년간 100개 기업 유치 2만6천여명 고용

일자리 정책 최우선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나누어 오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유치 분야에서 (주) 녹십자 백신공장을 증설해 오는 2020년까지 52명을 고용하고, 2022년까지 (주)포프리 화순식품단지 개발을 통해 360명, 2019년까지 (주)비리오화순의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와 숙박시설 사업을 통해 1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9개 기업에 분양해 4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동면제2농공단지 분양 6개 기업에 170명,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45개 기업을 유치, 4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는 2022년까지 기존 기업 25개를 유치해 3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생물의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

자리 창출도 활성화 된다.

군은 836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완공해 57명, 동물대체시험센터는 2018년까지 건립해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비롯해 프라운호퍼 프로젝트센터 설립과 대신 공약인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설립을 통해 2022년까지 170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화순·나주·장흥에 생물의약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문제인 대통령령의 대선공약과 연계해 국제 수준의 생물의약 인프라 확충을 통해 400명의 전문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서

민층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5년 동안 5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확대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시키면서 장기근속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청년 내일로·마을로·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과·제빵 청년 전문가를 육성하고, 카페 소자본 창업, 양봉·곤충 이카데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군을 이룰 위해 전문 직업 상담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군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군의 행정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명품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배 선과장 방문 격려

과잉생산·소비위축 재고량 늘어...시장 격리로 수급 안정 도모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설 명절을 앞두고 나주 배 출하를 위한 선별·포장 작업으로 분주한 나주배원협, 거점APC, 지역 농협 등 공산출하조직을 방문해,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올해 나주 배 가격은 양호한 생육 환경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국산 과일 소비 부진 등이 겹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최근 3주 간 공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상황이다.

선과장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시장은 "과잉생산과 소비 시장 위축으로 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주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나주배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시는 과잉 생산과 침체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산출하에 참여하는 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 해 추석절 1,780톤 매치사업에 이어 시는 농협경제지주 품목조합부, 지역농협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저품질과 2,000톤을 대상으로 운송비, 선별비 등을 지원, 시장 격리에 나설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지속되는 한파로 배 출하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 예방과 기관지 기능향상 성 인병 및 변비예방 담 제거 등 건강에 큰 효과가 증명된 나주배를 명절 선물로 적극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품 본격 출시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의 시제품 생산 및 상품화로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문을 연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가 본격적인 가공품 출시로 운영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2월부터 아로니아분말을 첫 가공품으로 현재까지 백향과 당절임류인 백미향, 모파차, 들깨, 참깨 등 유지방류 등을 출시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브랜드인 '순순순(純純純)'을 달고서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 마트, 농가 직거래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것.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및 가공품 판매액이 1월말 기준 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소규모 생산농가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해까지 가공·창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37회에 걸쳐 1082명을 교육하였고, 314농가에서 아로니아분말, 배도리치즈, 키위잼 등 103개의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가공품을 출시한 만큼 다각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품 출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순천시 농산물 가공품이 순차적으로 출시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노인일자리 2545명 제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노인회·시니어클럽 등 14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어르신 25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순천시 거주 어르신으로 공익활동은 민65세 이상 기초

연금을 받아야 하며, 시장형 및 인력과전형은 민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순천 시니어클럽, 순천시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3개 소 등에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사업은 오는 3월~11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하며 활동비는 월 최대 2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 수가 300여 명이 늘어나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순천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인 순천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순천시니어클럽(745-6090), 순천시 노인회(744-379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다목적 트레이닝센터 선수들 훈련장으로 '인기'

최신 운동기구 30여 대 비치·중독 막론 예약 팀들로 성황



광양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동계 전지훈련팀이

훈련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훈련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2016년 초 개장한 광양 다목적 트레이닝센터가 전지훈련팀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센터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과 파워레그프레스, 체스트웨이트 등 상·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최신 운동기구 30여 대가 비치돼 있으며, 휴게실과 샤워장도 있어 체력훈련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트레이닝 센터에는 연중 광양시청 육상팀과 볼링팀, 현대 축구부, 광양고 태권도부, 하이텍고 육상부 등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비롯해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비시즌을 휴리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

또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팀들 간 눈치 경쟁이 치열해 중독을 막론하고 예약 팀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경남 거제 삼룡초는 아간을 이용해 체력보강을 실시했으며, 이번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 참가한 축구팀에서도 사용하는 등 트레이닝장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우리를 찾는 전지훈련팀에게 경기력 향상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장 무료 개방은 물론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수단의 전지훈련 성과를 최대한 이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